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http://www.motie.go.kr
2016년 3월 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1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과장 김상태(044-203-5720), 서기관 이응대(5721)

주형환 산업부장관, 이란과 중장기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

- 제11차 한-이란 경제공동위 개최로 정부간 협력 프레임워크 마련 -
- 이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통해 전방위적 협력 방안 모색 -

【 제11차 한-이란 경제공동위원회 개최(2.29) 】

□ 한국과 이란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란 산업광물자원부 장관(Nematzadeh)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「제11차 한-이란 경제공동위원회」를 2.29(월) 오후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한-이란 경제공동위원회는 UN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되던 2007년 이후 중단되었다가, 제재 해제를 계기로 10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금융, 산업, 에너지, 건설·플랜트, 보건·의료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.

□ 한국과 이란 정부는 금융·재정·관세·세제, 산업·무역·투자·중소기업 등 총 6개 분과*별로 양국 관련부처간 논의를 거쳐 향후 협력 사업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합의의사록에 담았다.

* ① 금융·재정·관세·세제 ② 산업·무역·투자·중소기업 ③ 에너지·자원·광산 ④ 건설·인프라·해운·항만·농업 ⑤ 보건·의료·환경 ⑥ 문화·ICT·과학기술·전자정부

□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6개 분과별로 협의한 합의의사록을 발표하고 양국 수석대표들의 총평이 이어졌다.

[1] 금융·재정·관세·세제 분야는 양국간 무역·투자 확대를 위해 결제시스템 운영, 금융지원, 이중과세방지 및 관세 협력, 금융·보험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.

○ 양국은 기존의 결제 보조수단인 **원화결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·발전**시키고, 유로화, 엔화 등 여타 통화에 대한 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2016년 상반기중에 **수출입은행과 이란 상업은행간 50억 유로 규모로 기본대출약정을 체결**한다.

○ 수출입은행과 이란 2개 현지은행간 **2억불 규모 전대라인(Credit Line) 개설하고,** 올해부터 재개하는 **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를 재개키로 하고, 지원대상 사업을 상호 발굴**할 예정이다.

[2] 산업·교역·투자·중소기업 분야는 산업 협력 확대, 상호 기업진출 지원, 무역·투자 확대,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.

○ 철강, 자동차, ICT 등 분야에서 합작회사와 공동 생산하고, 양국 전략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'한-이란 무역·투자 컨퍼런스'를 매년 교차로 개최한다.

○ 포스코와 PKP社가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사업 관련 인·허가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하고, 양국 기업간 분쟁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양국 산업부 내에「차관보급의 상시 대화 채널」을 개설하기로 하였다.

[3] 에너지·자원·광산 분야는 유·가스전 개발, 이란산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입,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협력, 석유화학플랜트 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.

○ 이란산 콘덴세이트 등 원유 도입을 연내에 확대하고, **유·가스전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**하고, 이란석유공사와 SK에너지, 현대오일뱅크 등과 원유 및 컨덴세이트 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.

○ 발전소 건립과 개보수, 송·배전망 구축 등 **에너지 프로젝트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**하고,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, 시스템,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.

4 건설·해운·항만·농업·식품 분야는 인프라, 플랜트, 수자원, 신도시 개발, 항공, 항만, 선박 제조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.

○ 수자원 개발, 해운협정, 항만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한 MOU를 이른 시일내에 추진한다.

○ 한국선급과 이란선급간 이란 해양플랜트 검사 분야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(JV) 설립을 지원한다.

○ 반다르압바스 제1터미널은 제재대상이고, 대형선박은 이용할 수 없는 애로가 있어서 **한국 해운사가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구 제2터미널을 지속 이용**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.

5 보건·의료 분야는 **병원 설계 및 건립, 건강보험시스템 구축**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○ 보건정책 정보 교류, 병원설계 및 건립, 환자 송출,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.

○ 이란 건강보험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 교류와 타당성 조사(F/S)를 시행한다.

6 문화·ICT·과학기술·전자정부 분야는 한-이란 ICT 협력위원회 재개, 문화, 전자정부, 방송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○ **한-이란 ICT 협력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**하고, **과학기술 협력 MOU를 2016년 중 체결**을 추진한다.

○ 전자정부협력 MOU(2012년)에 따라 민·관·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.

○ 한-이란간 문화산업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, 문화산업 정책 및 정보 공유, 포럼 및 전시회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, **방송 분야(아리랑 TV) 뉴스 컨텐트 공유 및 구입**, 단기 교육훈련 실시, 전문 인력 교류 등 실시한다.

□ 경제공동위 직후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네마차데 이란 산업광업무역부장관 임석하에 중소기업, 무역진흥, 전자무역, Mini LNG 플랜트, 해양플랜트 인증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, 무보 금융 지원 등 6개 MOU를 체결하고, 차바하제철소 건설 16억불, 차바하 제철소 전력 설비 6억불, 모크란 유틸리티 6억불 등 28억불 규모 MOA/MOU도 체결함

< 경제공동위 계기 체결 5개 MOU 현황 >

MOU 제목	주요내용	서명자
중소기업 협력 MOU	ㅇ 중소기업 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ㅇ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	(한)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 (이) 중소기업·산업단지청 차장
무역진흥 MOU	ㅇ 경제무역 동향 등 정보 교환 ㅇ 무역진흥 사업 지원 ㅇ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등	(한) KOTRA 사장 (이) 무역진흥청 사장
전자무역 MOU	ㅇ 'uTradeHub' 인프라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공유 ㅇ 무역 정보교류, 기관간 협력촉진	(한)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(이) 전자상거래개발센터 사장
Mini LNG플랜트 협력 MOU	ㅇ Mini LNG 플랜트 및 파이프 내 유체흐름 분석과 관련된 기술협력	(한)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오션어스(주) 사장 (이) 석유개발연구원장
해양플랜트 인증 합작법인 설립	ㅇ 이란 해양플랜트 및 제3국 검사분야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	(한) 한국선급 (이) 이란선급

□ 이번 경제공동위 합의 사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**국은 협의채널을 운영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**할 계획이다.

○ 향후 양국 정부는 매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 사업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, 양국이 중장기적인 **공동번영의 동반자(genuine long-term partners for shared prosperity)로 발전**하기 위해 경제분야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.

【 고위급 인사 면담(2.29) 】

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.29(월)에는 석유부장관, 에너지부 장관, 산업광업무역부장관, 제1 부통령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.

1 주형환 장관은 비잔 장가네(Zanganeh) 석유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이란산 원유·콘덴세이트 도입확대, **이란산 원유 공동비축사업 제안**, 석유화학 및 가스 플랜트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.

○ 주 장관은 콘덴세이트를 중심으로 이란산 원유 도입을 2배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대금지불방식인 **원화결제시스템 유지 등 대금지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** 요청하였다.

○ 양국은 원유도입 확대 및 한국 내 석유비축기지의 활용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, 이를 **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MOU 체결도 추진**하기로 합의하였다.

○ 주 장관은 기존에 중단된 대림산업의 '천연가스액화플랜트 건설사업(40억불)'과 '이스파한 정유시설 증설 사업(20억불)'의 조속한 재개와 현대엔지니어링의 **'사우스파 12확장 2단계 사업(36억불)' 지원을 요청**하였고, 이란측은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.

○ 그 외에 한국가스공사가 추진중인 이란-오만간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협력, **이란발주 원유수송선, LNG운반선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수주 지원**을 요청하였다.

2 주 장관은 치트치연 에너지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전력 및 수자원 협력, 신재생에너지, 구체적인 프로젝트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.

○ 양국은 정부간 전력, 수자원,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가급적 이른 시일내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.

○ 주 장관은 '잔잔(Zanjan) 천연가스발전소', '네이자르(Neyzar) 가스복합발전소' 및 '박티아리 댐 및 수력발전플랜트'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고, 이란측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.

○ 추가로, 이란측은 신규발전소 건설과 노후발전소 개선, **송전전압 승압(400KV → 765KV)**, GIS/Hybrid 변전소 기술과 노하우의 이전을 포함한 신규 송변전 시설 건설, **스마트그리드 AMI 보급사업(5년내에 1,000만호) 등 이란측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한**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고,

- 이에 주형환 장관은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, **구체적인 사항은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**하였다.

○ 이란측 요청('15.8월)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검토중인 부세르市, 쉬라즈市에 **'스마트물관리시스템'을 구축**하는 사업은 상호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.

3 주 장관은 경제공동위 직후 개최된 이란 네마차데 산업광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무역·투자 확대, 상호 교차 행사 개최 등을 언급하였다.

○ 양국은 앞으로 양국간 무역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매년 양국이 교차로 「상품 전시회 개최」및 「한-이란 무역투자 컨퍼런스 개최」를 합의하였다.

○ 이란측은 자동차, 가전, 섬유 등에서 한국과의 합작 투자를 요청하고, 아국은 구체적인 사례로 이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겪는 통관 문제, 상품전 개최 등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하였다.

4 주 장관은 양국간 경제 협력 사항을 보다 수준이 높은 정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**자한기리(Jahangiri) 이란 제1 부통령(국무총리급)을 예방**하였다.

○ 자한기리 제1 부통령은 한-이란 양국간의 장점을 살려서 경제협력확대 방안외에도 정치, 문화, 사회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고,

○ 한국내 이란 은행 지점의 영업 원활화 및 합작 투자 확대를 위해 양국 정부가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으며, 제1 부통령은 이번 경제공동위 합의 사항에 대해 **각 장관들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지시**하겠다고 하였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김상태 과장(☎ 044-203-5720) 또는 이응대 서기관(☎ 044-203-57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